

# 성범죄와 보험

심 문 보

(한국위험관리(주) 사장)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성범죄 발생이 미국과 스웨덴 다음으로 세계 3위라고 한다.

최근 P. D.수첩이라는 TV방송에서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이 '어린이는 무지나 공포심에서, 어른은 수치심에서 사건이 숨겨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숨겨진 사건들을 감안하면 우리 나라의 성범죄 발생을 세계 제3위가 아니라 자동차 사고 발생률과 같이 세계 제1위가 되는 것이 아닌지?

성범죄의 경우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피해자들이 입는 물심양면의 피해이다. 정신적 충격으로 평생을 폐인으로 회복하지 못하는가 하면, 이를 고치기 위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위험 있는 곳에 보험 있다'는 원칙에 따라 미국에서는 성범죄 및 보험이 모두 세계 제일인 국가답게 성폭력에 관한 보험이 팔리고 있어서 여기에 몇가지를 소개한다.

### • 폭력범죄 희생자 보험

AP통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미 강도와 강간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는 새로운 보험이 미국 루이지애나 주정부 보험담당 부문에 의

해서 인가되어 일반에게 발매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파이오니어적인 상품으로, 이 종류의 것으로는 이것이 처음이다'라고 루이지애나 주 보험요율위원회의 H. P. 워커씨는 지적하고 있다.

마이애미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American Bankers Insurance Company는 자사가 개발한 '폭력범죄 희생자보험'의 영업 인가를 전미국 50개주에 신청해왔는데 "루이지애나주가 처음으로 인가를 내주었다."고 동사의 B.C.영 부사장은 말하고 있다.

강도 또는 강간의 피해자가 된 경우 이 보험가입자는 재물손해(Property Damage)에 대해서 1천불, 치료 비용으로 2천불, 요양(Rehabilitation)비용으로 2천불을 한도로 보상받게 되어있으며, 취업 불능의 경우에는 상실 소득의 85%—단, 주급 50불을 한도로 13주간 까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상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부 또는 요리사를 사용하는 비용으로 하루 15불의 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며,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50불의 보상이 있고, 사망시 상속인에게 3천불이 지급된다.

워커씨는 "보상액 자체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보험료를 보면, 루이지애나주에서 1년간 보험료가 개인의 경우 37불, 부부 1백39불, 가족 2백불로 되어 있다. 워커씨에 의하면 뉴올리언스의 요율이 높은 것은 강도·강간에 의한 신체 장애 이재율이 타지역 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1990년도에 뉴올리언스시에서는 1백25명에 한사람꼴로 강도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F.B.I. 보고서에서) 또한, 1천10명에 한사람의 비율로 강간을 당하였고, 2백20명에 한사람이 폭행 피해를 입고 있다. 한편, 루이지애나주 제2의 도시인 슈레프모트에에서는 4백75명에 한명이 강도 피해를 입었으며, 2천1백명에 한명이 강간, 3백20명에 한명이 폭행 피해를 입고 있다.

F.B.I의 범죄 보고서와 기타의 범죄 통계 자료를 사용해서 요율이 산출되었으나, 보험계약자중에서 피해를 신고하는 사람의 비율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요율 산출면에서 개괄적인 점도 있다고 워커씨는 말하고 있다.

### • 레이프 강간 보험

미국의 문호 어네스트·헤밍웨이

이의 손녀가 주연했다 해서 화제가 된 '레이프'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상영되어 '레이프'라는 말은 일상 용어가 됐으며, '레이프'라는 참담한 희생자에 대한 보험 보상도 이루어져가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소재하는 American Company Group의 American Bankers Insurance Company of Florida에서는 범죄희생자보험(Victim of Crime Policy)을 발표했다.

이 보험이 앞의 보험과 다른 점은 주로 레이프를 대상으로 보상한다는 점이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레이프의 발생 건수가 3분에 1회(일본은 3시간에 1회)로 믿을 수 없을 지경으로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저명한 겐퍼 그룹에서는 '레이프'에 의한 희생자의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으로 담보할 것을 발표했다. 겐퍼그룹의 설명으로는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업계 최초의 것이라고 한다. 그에 따르면 레이프의 희생자에 대한 의료 및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를 신속히 행하며 또한, 이 치료의 관리는 특별히 훈련을 받아 엄선된 사정인(Claim surveyor)과 요양지도사(Rehability Councillor)에 의해서 행해진다. 겐퍼그룹에서는 레이프에 의한 정신적 장애 및 효과적인 치료방법 등을 철저히 연구하여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 • 성희롱과 보험

성범죄에는 강간외에 성희롱도 범법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지난 4월에 S대학교의 조교인 W양이 동대학 자연대의 S교수를 성희롱으로 제소하여 3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보도되었다.

이 보도가 나가자 직장의 근신과 남성들은 "여직원과 말도 말고, 쳐다 보지도 말자"라는 유행어가 나왔는데, 이에 대하여 뱃장과 남성은 "그까짓 돈 3천만원에 미인과 말도 못하는게 사나이냐"하고 호기있는 응수를 하였다는 우스개도 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어느 여자 변호사는 "길거리에서 말을 거는 남자는 모두 성희롱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1993년 한 해 동안 미국 법원에 접수된 성희롱 관련 고발만 1만 건이

넘었다고 한다.

판결도 대단하다. 예를 들면, 어느 미국 기업의 중역이 여직원에게 말한마디 잘못했다가 무려 62만5천달러(5억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말의 내용인즉, "미니 스커트와 하이힐을 신고 출근하라구!"라는 말이었다는 것이다.

앞에서의 뱃장과 남성도 이 사실을 알면 그 엄청난 벌금액에 휩소리가 쭉들어 갈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러한 위험도 IP(중역)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고 있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하튼 앞으로는 보험없이 함부로 여성들과 말하다가는 큰일나는 세상이 된 것이다. ◎

